



헤민스님, 멈추다

서울 도심 자택 논란에 참회 뜻 밝히며 활동 중단 선언

최근 남산타워가 보이는 자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됐던 헤민스님이 참회의 글을 SNS에 올리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헤민스님은 15일 오후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대중 선원으로 돌아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고 수행 기도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트위터 등 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까지 출가 수행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다"며 그럼에도 "승려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이번 일로 상처받고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참회한다"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족했던 저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행자의 본질인 마음공부를 다시 깊이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더는 저의 일들로 지금 이 시간에도 분초를

다투며 산중에서 수행정진하시는 많은 스님들과 기도하시는 불자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민국 모두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기에 저의 부족함으로 실망을 드려 거듭 참회한다"고 말했다.

앞서 헤민스님은 지난 7일 한 방송 예능프로그램 '온앤오프'에서 이른바 '남산타워 뷰'의 서울 도심 자택을 공개한 것 등을 두고 논란이 됐다. 당시 방송에서 스님은 "절에서 살지 않는다. 도시에서 지내는 스님은 상가 건물 주변에 생활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가 한때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건물을 보유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단체에 팔아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로 불교 특유의 무소유 문화와 배치

된다는 비판이 일었다.

'푸른 눈의 수행자' 현각스님은 전날 SNS에 "연예인일 뿐이다. 일체 석가모니 가르침 전혀 모르는 도둑놈일 뿐"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나 현각스님은 페이스북에 "아우님, 헤민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전하며 그를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현각스님은 "헤민스님과 70분 간 통화에서 사랑, 존중,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다"며 "영적인 삶은 비행과 같다. 그것은 항상 항로를 수정하고 적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난기류를 만날 수 있고 나 또한 비행 계획에서 여러 번 벗어났고 때로는 인간답게 계속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또한 헤민이나 다른 이들보다 낫거나 순수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헤민스님은 미국 국적자로 스무 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 하버드대에서 비교종교학 석사학위를, 프린스턴대에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주 햄프셔대에서 종교학 교수를 지냈으며 2000년 헤인사에서 사미계를, 2008년 직지사에서 비구계를 받고 조계종 승려가 됐다.

헤민스님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은 그의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였다. 현재까지 누적 판매부수가 300만 부를 돌파했으며 전 세계 26개국에 판권이 수출됐다.

그러나 불교계에 따르면 헤민스님이 조계종 승려가 된 2008년 이후 불교의 수행방식 하나인 '안거(安居)'에 참여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거는 여름과 겨울철에 세달 동안 외부 출입을 삼가 채 스님들이 참선 수행에 정진하는 것을 일컫는다. 불교계에서는 안거에 참여하는 승려가 하안거와 동안거 각각 2000명씩 모두 4000명 정도로 추산한다. 조계종 소속 승려가 약 1만3000명인 점이라는 면에서 볼 때 적지 않은 수다. 또한 참선을 중요한 수행방식으로 여기는 불교계에서는 안거에 몇 번 참여했는지가 수행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에 비해 헤민스님은 서울과 부산에서 마음치유 학교도 운영했다. 최근에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紙) 한국 특파원 출신인 다니엘 튜더와 명상 앱 '코끼리'를 출시하며 IT사업을 개시하기도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런 날, 기분엔... 음악!

조현영 아트앤 소울 대표 '오늘의 기분과 매일의 클래식' 펴내

전공자가 전하는 쉬운 클래식...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등 45곡 소개

"이런 날, 이런 기분일 땐 어떤 음악을 들으면 좋을까."

목욕하고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복잡한 마음을 온전히 쉬고 싶을 때, 일탈의 기분으로 낯설한 잔 하고 싶을 때, 절절한 사랑이 떠나갈 때. 바로 '그런 때' 음악이 함께라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질 지도 모르겠다.

피아니스트이자 음악과 관련된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조현영 아트앤 소울 대표는 이 때 리스트의 '현정'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비창 2악장', 굴다의 '첼로협주곡 1악장',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를 권한다.

조현영 대표가 클래식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오늘의 기분과 매일의 클래식' (현암사 간)을 펴냈다. '보통날의 클래식', '음악 하나로 위로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랑한다면 이틀처럼' 3부로 나뉜 책에는 45곡이 소개돼 있다. 또 QR코드를 통해 소개된 음악을 바로 들어볼 수 있도록했다.

클래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첫 책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와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유럽을 여행한 기록인 '피아니스트 엄마의 음악 도시 기행'에 이어 세번째 나온 이 책은 '일상과 어우러진 클래식 레시피'라고 할 수 있다.

전남대를 거쳐 독일 쾰른 음대, 라이프치히 음대에서 공부한 조 대표는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며 진행하는 강의로 인지도가 높다. 또 잡지 '블클래스'에 '조현영의 보통 사람들 위한 클래식'을 연재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럽 '조현영의 울어바웃 클래식'도 진행 중이다.



"클래식은 아는 만큼 들리는 음악이지만 모르기 때문에 또 친해지고 싶은, 듣고 싶은 음악이기도 합니다. 물론 클래식은 다른 장르에 비해 다가가기 어렵고 처음 들 때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죠. 시간을 두고 묵묵히 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단어 대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풀기 위해 더 많이 음악을 듣고, 글도 자주 수정했어요."

이번 책은 인터넷에 연재중인 글을 본 현암사의 제의로 함께 기획해 펴내게 됐다. 편집자는 "어느 공간에 책이 놓여 있을 때 쉽게 집어들 수 있는 친근한 클래식 책"을 제안했다.

작곡가 등 책에 소개된 45곡에 얽힌 다채로운 이야기와 함께 이번 책에는 예전 저서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다. 어릴 적, 유학시절의 추억을 소환하고 남편과 아이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모두 '클래식'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화들이다. 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오펜바흐의 오페라 '지옥의 오르페우스' 중 '강강'이나 독일 유학 시

절 외로움에 눈물 쏟으며 들곤했던 바흐의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등이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책이나 글을 쓸 때 저를 숨기고 싶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독자들이 공감할 못하는 부분도 있었죠. 쓰는 사람이 벽을 치고 쓰기 시작하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죠. 전공자 보다는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쓴 책을 사람들이 친근해하는 걸 보며 여러 생각을 했죠. 물론 이런 책들 가운데는 사실이 아닌 게, 꼭 사실인 것처럼 소개돼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요. 전공자가 정확한 사실을, 좀 더 친근하게 쓰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했어요. 제가 경제와 정치를 알고 싶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요."

곡 선정에도 정성을 쏟았다. 클래식 초보자들의 눈높이에는 맞추되 너무 뻥한 곡들도 소개하고 싶지는 않았고, 새로운 곡들도 소개하고 싶었다.

"매일 매일 이어지는 보통의 일상에 함께 듣고 싶은 음악을 소개했는데 결국은 제 감정이 진하게 끌리는 곡들이었죠. 페르트의 '겨울 속의 겨울' 같은 곡은 제가 정말 위로받았던 곡이었죠. 음악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듣느냐가 마음에 오래 남는 듯해요."

책에는 누구나 들어봤을 드보르작의 '유머레스크', 파헬렐의 '캐논', 김동규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슈베르트의 '피아노 5중주 송어' 등과 함께 '겨울 속의 겨울',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9번 '좌반', 피터 하이드리히의 '해피버스테이 변주곡', 클라라 슈만의 '슈케르초' 등 다채로운 곡을 만날 수 있다.

내년에는 또 다른 출판사에서 제안받은 '클래식의 쓸모' (가제)를 출간할 예정이다. 인물의 일대기와 음악이 어우러진 책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연극 '전태일-네 이름은 무엇이냐'

오늘 5·18기념문화센터

전태일 열사 분신 항거 50주년을 기념해 연극 전태일 '네 이름은 무엇이냐'가 열린다.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1층 민주홀.

이 작품은 극단 한강이 창작하고, 나무닭움직임연구소가 제작한 연극으로 5·18기념재단, 2020연극전태일추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가 공동 개최한다.

한 청년 노동자가 주인공이 되어 우울하고 열악한 현실에 맞서 자신으로 항거해 변화를 도모한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다 전태일이자 주인공이다. 각 장면에 등장하는 각각의 전태일은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돼있다.

연극은 서사 음악극으로 총 22개의 노래로 구성됐으며, 무대에는 지역에서 활동중인 배우들이 오른다.



본 공연은 10세 이상 사전 예약자에 한해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알림홍보 게시판을 확인하면 된다. 선착순 100명 무료 관람. 문의 062-360-0523.

/전재재 기자 ej621@kwangju.co.kr

출판사 대표 선정 '올해의 책' '예술가들의 파리' 시리즈

출판사 대표들로 구성된 '책만드는사람들' (이하 책만사)은 '올해의 책' 대상으로 '예술가들의 파리' 시리즈(현암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작은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한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로 '벨 에포크, 아름다운 시대', '새로운 세기의 예술가들', '파리는 언제나 축제' 등 3권으로 출간됐다. 빅토

르 위고와 에밀 졸라, 드뷔시, 피카소, 헤밍웨이 등 여러 예술가의 풍성한 이야기들이 담겼다.

그밖에 선정작은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기' (그림비)와 '화이트' (컬처북), '떠도는 땅' (은행나무), '나무 이야기' (한스미디어), '피너츠 완전판' (북스토리), '미국 함정' (울림), '우리나라 한방 산약초 백과' (이바라), '우리들의 광장' (길벗어린이), '공정: 내가 케이크를 나눈다면' (우리학교)이다. 올해의 베스트셀러는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가 차지했다.

'책만사'는 27번째 활동하고 있는 42개 단행본 출판사 대표들의 연구 모임으로 매년 11월에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예술교육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재단 '반만위크숍'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반만위크숍' 참여자를 18일까지 모집한다.

은·오프라인 방식 참여하는 위크숍이라는 뜻의 반만위크숍은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거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에 고민이 있는 관계자라면 가능하다.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위크숍은 '삶과의 만남-인생전환기 삶과 문화예술', '눈과의 만남-인택트 문화예술교육', '젊음과의 만남-청년대상 전환기 문화예술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현주&조광희(A.C.클리니안 공동대표), 조재경(고신대학교 대표), 예정원(독립기획자), 실동준(DMZ피스트레인 워크페스티벌 사무국장) 등이 강사로 참여한다.

위크숍은 은·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희망자는 오는 18일까지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은·오프라인 각각 20명씩 가능). 문의 062-670-5763.

/박성천 기자 skypark@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